

지역 소식통

부안 진서면, 출생신고 기념 '베이비 웰컴 서비스' 실시

부안군 진서면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을 장려하려고 '베이비 웰컴 서비스'를 실시해 이목을 끌고 있다.

베이비 웰컴 서비스는 출생신고를 위해 방문하는 신생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출생을 기념하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손 글씨로 정성을 담아 작성한 출생 축하카드를 발송하는 서비스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아기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태명, 혈액형 등 신상을 기재하며 법적 증명 효력은 없지만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기관 방문시 아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제작된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과 출생 축하카드 발송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시 아기 사진 1장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 역사 심화 교육 강화하기로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생기 시장)는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시민을 대상으로 독도 바로 알기 등 역사 심화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독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영토임이다"는 의제로 열린 회의에서 2015년 하반기부터 민방위 대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역사 안보관 교육을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초·중·고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관 확립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멈출 줄 모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의지와 지난달 21일 정부 대변인 스키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올해 들어 일본 아베정부가 각료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읍=김대환기자

민주평통 부안군협의회 국가안보관 확립 발벗고 나서

국민의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위해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가 부안지역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전단을 배포해 국가안보관 확립에 발벗고 나섰다.

민주평통부안지역협의회는 신학기에 등교하는 지난 2일 아침 7시부터 부안 관내 부안여자 중·고등학교, 부안제일고, 부안여상 등 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17년 민주평통 부안군 협의회 홍보전단을 배포하며 국가안보관을 심어주었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시, 정읍역 사거리~연지아트홀 구간

간판 개선 사업 본격 추진

전북도 주관 공모사업 선정 사업비 확보,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조성

정읍시가 정읍역 사거리에서 터미널을 지나 연지아트홀에 이르는 750m 구간에 대한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시는 이번 간판 개선 사업을 '연지아트홀 걸어가길' 조성 사업이라 이름 붙이고 구간 내 업소의 간판을 미적으로 아름답고 시각적으로도 돋보이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 사업이 최근 전북도가 주관한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8천만 원에 시비 1억2천만 원을 더한 총 2억 원으로 정읍역사거리~터미널 구간 200m에 설치된 50여개의 간판을 정비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간판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 국비 등 4억 원을 확보해 잔여 구간인 터미널~연지아트홀 구간(550m)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통해 연지상가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와 관련 시는 이 사업이 최근 전북도가 주관한 2017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우선 올해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한 도비 8천만 원에 시비 1억2천만 원을 더한 총 2억 원으로 정읍역사거리~터미널 구간 200m에 설치된 50여개의 간판을 정비키로 했다.

이어 내년에도 행정자치부 주관 간판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아 국비 등 4억 원을 확보해 잔여 구간인 터미널~연지아트홀 구간(550m) 100여개의 간판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간판 개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부터 도시재생대학 교육을 통해 연지상가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를 이끌어 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옥외 광고물 정비 시범구역 지정과 함께 10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구간 내 상점주와 건물주들의 동의서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점포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노후 되고 불량한 간판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 건물과 업종에 맞는 아름다운 간판으로 정비하여 거리경관을 개선하고 선진 간판문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윈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거리에 유풍함과 즐거움을 불어넣음으로써 옛 도심이 활력을 찾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노인일자리·사회 활동 지원 사업 추진

사업비 54억9000만원 투입...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 제공

정읍시가 올해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54억9,000만 원을 투입한다.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꾀하면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노인복지사업이다.

올해 사업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정읍시지회 등 7개 기관과 19개 읍면동으로, 모두 2,541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한다.

시에 따르면 공익 활동형과 시장형

등 2개 분야 48개 사업단이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어르신들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하며 지난해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22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국민체육센터에서 2017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 활동 지원 사업 발대식을 갖고 관련 소양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참여 어르신들은 "지역 어르신으로서 근면함과 성심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젊은 세대에게 모범이 될 것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

계 일하는 어르신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디딤돌청년협업농장 공모

2017년 전북도에서 농촌과 소화 대응 인력 육성사업에 부안군 하서면 미래농업법인이 디딤돌청년협업농장 공모에 선정됐다.

디딤돌청년협업농장은 농촌에 정착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부안군 하서면 하서미래농업조합법인과 함께 농촌현장에서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농촌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다.

전북도에서는 하서미래농업조합법인과 함께 농촌현장을 이끌 역량 있는 만 20~40세의 청년 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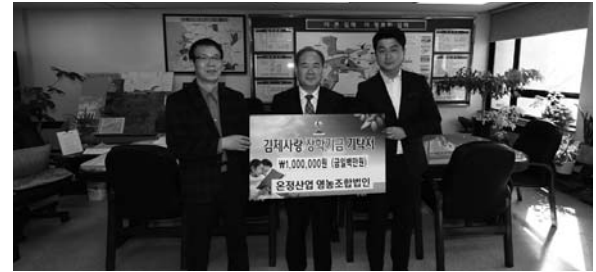
선발된 청년은 매달 영농활동비 80만 원이 지원되고 교육활동, 선진지 견학 등을 농촌현장에서 수행하게 된다.

지원 조건은 전북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이주(귀농) 예정인 청년으로 하서면에서 상근 근무하기가 가능하

게 일하는 어르신으로서의 위상을 다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김생기 시장은 "어르신들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으로 자긍심을 갖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온정산업영농조합법인

지역인재 양성 장학금 1백만원 기탁

김제시농장경제재단은 온정산업영농조합법인에서 "김제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1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온정산업영농조합법인은 백성면 상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5명이 참여하여 2007년도에 설립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액비를 생산하고 살포해 주는 일을 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 주변에 유기질 비료가 필요한 농가를 위해 무료 살포도 할뿐만 아니라 지역의 불우어웃돕기 등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정민우 대표는 "김제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기탁하게 되었으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이를 계기로 자신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 가고 지역사회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이승복 김제시 부시장은 "기탁하신 소중한 장학금은 지역 인재들이 훌륭한 재목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까지 장학금을 후원하여 주신 든든한 후원자 덕분에 인재양성의 소기 성과를 거두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대학, 졸업·입학식 병행

김제지평선대학 2016학년도 졸업식 및 2017학년도 입학식이 김제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이승복 시장 권한 대행 및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농업인 대학 등문 및 임원 졸업생 및 입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이날 김제지평선대학 종자생산관리 및 토양관리 등 2개 과정에서 65명의 농업인들이 1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고, 입학식에서는 쌀가공과정 59명, 특용작물과정에서 30명의 신입생이 각각 입학했으며 이날 졸업식에서 1

년 동안 학생장을 역임하며 학생자치 활동 운영에 공헌한 백구면 서명석씨가 농촌진흥청장상을, 지평선대학장 표창에 이원규씨, 홍창락씨, 김진수씨가 수상을 받아 참석한 모든 분들로 부터 큰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제지평선대학은 김제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최고경영자를 양성, 김제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며, 12년간 8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장학숙 입사식

2017년 정읍장학숙 입사식이 장학숙 현지에서 열렸다. 입사식에는 학생 90여명과 직원, 그리고 장학숙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환영사와 입사생 대표자 선서, 자율회 임원 선출, 학사생활 안내,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최종필 정읍시민장학재

단 부이사장 등 많은 인사들이 참석해 입사생의 장학숙 입사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격려했다.

지난해 9월 본격 개관한 정읍장학숙은 경기도 인양에 자리하고 있다.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로 기숙사와 휴게실, 독서실, 식당, 농축산물판매장, 체력 단련실 등을 갖추고 있다.

월 사용료는 15만원으로, 좋은 환경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활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걸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